

■ 중남미 GSM 휴대전화 세계 최고 성장 지역

- 금년 3월말 현재 2천 9백만대로 190% 성장
- 저렴한 가격이 시장확대 주요 요인
- 중남미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GSM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 금년 3월말 현재 중남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GSM 휴대폰 수는 2천 9백 만 대로 1년 전에 비해 1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중 세계 GSM 휴대전화 수는 26% 증가에 그쳤음.
- 에라스모 로자스 3G 아메리카스 중남미담당 이사는 “중남미지역에서 GSM 휴대폰이 금년 말까지 CDMA 휴대폰을 앞지를 것”이라고 밝혔음. 3G 아메리카스는 미주대륙에서 GSM 휴대전화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통신사업자, 통신기기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임.
- 브라질통신국(Anatel)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는 1천 1백만대의 GSM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12개월간 GSM 휴대폰 수는 308%가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브라질 전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천 2백 40만 명으로 이중 78.8%가 프리페이드 휴대폰임.
- 브라질에서 GSM 통신사업자는 TIM, Claro, Oi 등 3개사 이며 브라질 최대 휴대전화 사업자인 Vivo사는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지난해 중남미지역에서 CDMA 휴대전화 수는 29% 성장한바 있으며 가장 많은 통신방식은 아직도 TDMA 방식으로 7천만대가 존재하고 있음.
- 중남미지역에서 GSM 휴대폰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격이 보다 저렴한 GSM 휴대폰을 선호하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다 단순한 모델의 경우 GSM 휴대폰이 같은 종류의 CDMA 휴대폰에 비해 20%나 저렴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브라질의 CDMA 통신사업자인 Vivo사는 보다 저렴한 휴대폰 공급을 위해 중국의 ZTE사와 구매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며, 또한 Vivo사는 브라질의 휴대폰시장 급신장과 금년 말 크리스마스시즌과 내년도 휴대폰 공급을 위해 최근 3억 7천 5백만불에 달하는 5백만대 휴대폰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중남미지역에서 휴대폰 구매 열기와 함께 GSM 휴대폰 사용자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문의처 : 상파울루무역관 황기상 kshwang@kotra.or.kr)